손흥민, 발롱도르서 亞 역대 최고 순위 기록

설기현 · 박지성 넘어 12년만에 기록 경신 22위…토트넘서도 최고

'손세이셔널' 손흥민(27 · 토트넘 홋스퍼)이 발롱드로에서 아시아 선수 중 역대 최고 순위에 오르며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프랑스 축구 매체 '프랑스 풋볼'은 3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19 발롱도르'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 주어지는 '발롱도르' 수상자로 리오넬 메시가 역대 6번째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팬들의 기대를 모은 손흥민은 22위에 랭크되며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발롱도르에서 최고 순위에 오른 아시아 선수는 지난 2007년 아라크의 아시안컵 우승을 이끈 유니스 마흐무(29위)였는데 이를 뛰어 넘은 것.

프랑스풋볼도 이 사실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12년 만에 아시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손흥민의 2019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프랑스풋볼의 발언대로 손흥민은 올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를 오가며 9골 8도움을 기록하며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손흥민보다 낮은 순위의 선수들도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대표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26위, 바르셀로나의 수문장 테어 슈테겐이 24위, 손흥민의 팀 동료 요리스가 23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2위의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 1위, 요리스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축구의 전설들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는 지난 2002년 설기현(안더레흐트), 2005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세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설기현과 박지성이 후보에 올랐을 당시 최종후보는 50명이었고, 당시 두 선수는 모두 표를 받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날(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시상식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로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으며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

메시 6번째 발롱도르, 호날두 넘어 역대 최다수상

리오넬 메시(32 · 바르셀로나)가 개인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 유벤투스)를 넘어 역대 최다수상자로 우뚝 섰다.

프랑스 축구 매체 '프랑스 풋볼'은 3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19 발롱도르' 시상식을 열고 세계 최고의 선수에 주어지는 '발롱도르' 수상자로 메시를 선정했다.

메시는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개인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품에 안았다. 이로써 라이벌 호날두(2008, 2013, 2014, 2016, 2017)를 넘어 발롱도르 최다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메시는 지난 시즌 50경기에서 51골을 퍼부으며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뉴스1

'JLPGA투어 우승' 배선우, 세계랭킹 30위 점프

고진영 19주 연속 1위…박성현 2위 · 김세영 6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한 배선우(25 · 삼천리)가 세계랭킹 30위에 올랐다.

배선우는 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2.92점을 기록, 지난주 36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0위에 자리했다.

배선우는 지난 1일 일본투어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 지난 8월 홋카이도 메이지컵에 이어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이 종료되면서 상위권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고진영(24 · 하이트진로)은 19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박성현(26 · 솔레어)은 2위, 김세영(26 · 미래에셋)은 6위다. 이정은6(23 · 대방건설)는 지난주 9위에서 8위로 1계단 상승했다.

지난주 14위였던 김효주(24 · 롯데)는 박인비(31 · KB금융그룹 · 14위)를 밀어내고 13위가 됐다.

활발해 질 FA시장 · 외국인 3명 출전

2020년 프로야구 어떻게 바뀔까

FA 제도개선을 향해 첫발을 뗀 프로야구가 내년부터 큰 폭의 변화와 마주한다. 리그 흐름 자체가 변할 전망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FA 제도개선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서 FA 등급제 등 몇몇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선수협과 KBO간 샐러리캡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고 도입 시기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 모두 프로야구 제도개선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가장 논란이 된 FA 등급제의 경우 내년 시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다. 선수들의 3년간 연봉과 옵션액수에 따라 순위별로 등급을 나눠 보상규정을 차등으로 설정하는 방식인 FA 등급제가 도입되면 FA 대상자들은 A, B, C 등급으로 나뉘어 보상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A급 선수로 분류되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B급 선수의 경우 보호되는 선수(25인 제외)가 늘고, 보상금이 줄어들어 이적이 다소 용이해진다. C등급 선수는 보상선수가 없어 이전보다 활발한 이적이 가능해진다.

FA 취득 연한도 기존 고졸 9년, 대졸 8년에서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줄어든다. 선수들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선수들은 이전보다 1년 빨리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누적 국가대표 경력에 따라 이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도 있다. 류현진, 김광현처럼 해외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의 경우도 그 시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와 같은 부상자명단 제도도 신설돼 앞으로는 부상 단계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FA 등록 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경우 내년 시즌 시작과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도 종전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이미 많은 구단들이 내년 시즌 구단운영비 등을 책정한 상태라 이는 2020시즌 후 적용될 방침이다.

외국인선수 운용도 변한다. 올시즌까지 3명 등록에 2명만 출전이 가능했지만 3명 등록에 3명이 모두 출전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구단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외국인선수를 기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선발투수 1명, 외국인타자 2명의 선발출전 같은 경우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 또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은퇴 선언' 이세돌, 국내 AI 한돌과 마지막 대결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36)이 바둑인 공지능(AI) '한돌'과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이세돌은 오는 18일과 19일 서울, 21일 전남 신안에서 NHN의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대국을 펼친다.

18일과 19일 정오에는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21일 정오에는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신안에서 대국이 진행된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3회이며, 대국은 3번기 치수고치기로 진행된다. 이세돌은 한돌과의 대결에서 먼저 두 점을 깔고 시작한다.

치수고치기는 대국자 사이의 기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두는 바둑으로 대국 결과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치수(실력이 약한 쪽이 미리 바둑판 위에 놓는 돌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돌은 1999년부터 '한게임 바둑'을 서비스한 NHN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돼 현재 프로기사 실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